



##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마지막날 또 터졌다 5,000만달러 추가 수출계약

- (주)풍림파마텍, 웨일엔터프라이즈와 미국시장 진출

-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마지막날인 24일에는 5,0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식이 추가로 진행되며 이번 대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 5천만달러 수출계약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사상 단일 건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으로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우리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재외동포와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로 나아가는 데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계약의 주인공들은 (주)풍림파마텍(조희민 회장)과 웨일엔터프라이즈(Whale Enterprise LLC/이경철 회장)로, 의료기기 품목 5,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윤여봉 경제통상진흥원 원장과 조희민 풍림파마텍 회장, 이경철 웨일엔터프라이즈 LLC회장,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주요임원 10여 명이 참석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논의하며, 향후 추가 계약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 (주)풍림파마텍은 주사기, 주사침, 바이알 등 의료기기 및 관련 제품을 제조 공급하는 회사이며, 웨일엔터프라이즈는 미국 조지아주 노르크로스에 소재한 기업으로 글로벌 PPE(의료용 개인용 보호장구) 공급업체이다. 이번 계약식으로 유통 판매 제품군의 다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금번 대형 계약의 주인공인 이경철 회장은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총회장으로서, 미주총연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내년도 지역대회인 미주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대회 상담 건(3.3억달러, 10.23기준)을 추적 관리하여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지역별 대회, 한상넷 온라인 플랫폼,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 Biz)을 통해 한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실질적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오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통해 이뤄진 수출 계약 성과여서 의미가 깊다”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끝.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	책임자	과 장	이 경 아	032-585-3220
		담당자	사무관	황 인 용	032-585-3293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TF	책임자	팀장	박 영 규	063-711-2102
		담당자	담당자	남 궁 훈	063-711-2186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